

# SK인천정유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양 진 | SK인천정유 정책협력팀장



▲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는 최상훈 대표이사과 SK인천정유 임직원들.

자원봉사단 우리 사회의 전체 구성원이 보다 인간답고 행복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자발적인 활동을 뜻한다. SK인천정유가 작년 3월 SK가족의 일원으로 행복날개를 달고 새롭게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SK 경영철학이 집약되어 있는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기초로 한 「행복경영」의 실천(즉,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을 넘어, 사회의 일원인 '기업시민' 으로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SK인천정유는 출범초기부터 구성원들의 행복서약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를 목표로 경영전반에 걸쳐 사회공헌활동을 단계적으로 실천하여 왔다. 또한, 최고경영층은 물론 전 임직원과 가족들,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자원봉사단 '인천사단'

SK인천정유의 자원봉사단인 '인천사단'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SK의 경영철학과 SK인천정유의 행복서약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2006년 11월 발족식을 가졌다.

SK family는 '기업은 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간다'는 경영철학과 모두가 행복해 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에 SK인천정유의 많은 임직원들도 뜻을 모아 자원봉사단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였다.

"仁川" + "천사단"을 합쳐 "인천사단"이라 명명하고, 약 28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첫째,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둘째, '무보수성'에 입각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봉사, 셋째, 마음으로 다가가서 직접 부딪쳐 땀 흘리는 봉사, 넷째, 지역사회에 진정으로 도움되는 봉사라는 목표로 자원봉사단을 창단하게 된 것이다.

'인천사단'은 2006년 발족과 함께 인천 YMCA와 SK family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통해 7,500포기의 김장을 담그고, 이 중 일부를 SK인천정유 명의로 서구청에 전달하였으며, (사)따뜻한 한반도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공동으로 CEO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인천 서구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에 사랑을 담아 전하였다.

현재, '인천사단'은 정기적으로 3개팀으로 나눠 지역의 양로원과 장애인 재활시설에 방문하



▲ '인천사단' 발대식 모습



▲ '국토대 청결 운동'에 참여한 SK인천정유 임직원들

여 자원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루터기' '레츠고투게더' '해피라이더' 3개 팀으로 나뉘 '예향원' '낙원양로원' '사랑의 집' 등 양로원과 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청소봉사, 목욕봉사, 정서지원 등의 사랑실천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 및 부산저유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본사가 위치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사랑의 집' 과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천성아동재활원' 을 매월 방문하여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고 있다. '인천사단'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는 전체 임직원의 60%에 달하며, 인천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K인천정유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복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더불어 임직원간의 일체감과 결속력을 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봉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천사단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 대 청결운동

SK인천정유는 공장 인근지역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국토 대 청결운동을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하고 있다. 법정관리라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던 공장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임직원들은 매월 1회 어느 때보다 일찍 회사로 출근하여 공장 인근지역의 도로변과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있다. SK인천정유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 지역노인정 지원 및 사회복지재단 협조

SK인천정유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한 기성세대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

고자 매년 명절마다 근처 노인정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연말마다 불우 이웃 모금행사인 '사랑의 열매'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소외된 불우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아울러 SK인천정유 여직원 모임인 '성지회'에서는 다양한 사내모금 활동을 통해 작은 성금이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있다.

## 불우이웃 후원

SK인천정유 임직원은 인천지역 결식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2001년부터 매달 자발적인 급여공제를 통해 인근 초등학교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처음 30여명의 참여를 시작으로 현재는 290여명(전체 임직원의 55%)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장의 폐지매각 금액, 사내 동호회의 지원금을 모아 결손자녀 및 독거노인 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SK인천정유는 단순히 성금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과 함께 반가운 인사와 따뜻한 격려를 나눔으로써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SK인천정유는 과거 법정관리라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CEO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회사의 비전인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아태지역 최고효율의 정유회사' 달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 창출을 넘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출범 초기 SK인천정유의 모든 구성원은 행복서약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다짐했다. 이는 SK인천정유의 모든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행복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와 행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빨리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SK인천정유는 현재 타 정유사에 비해 역량과 자원이 아직 작고,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직접 부딪쳐 땀 흘리는 봉사하는 자원봉사의 '진정성'의 의미를 전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 연탄과 김장김치를 기증하는 '인천사랑'